

가전·자동차 기업 인력난 해소...광주시 '내일박람회'

29·30일 광주글로벌모터스·한국알프스 등 지역기업 60개사 참여 100여개 부스, 구직자에 정보 제공...다음달 5일까지 온라인박람회

광주시는 가전·자동차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9일부터 3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광역시와 함께 찾는 내일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와 북구, 광산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추진중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고용노동부 공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직업상담관과 구인기업 채용관, 기업컨설팅관, 내일전환아카데미관 등으로 운영된다. 이 자리에는 ▲구직·취업 상담 ▲이력서 및 면접클리닉, 1대1 컨설팅 ▲재무설계 및 취·창업 설계 ▲정년·중·장년, 재직경력자 컨설팅 ▲인사·노무컨설팅

등 100여 개의 현장부스를 마련해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구직기업 채용관에는 (주)광주글로벌모터스, 한국알프스(주), 코비코(주) 등 지역기업 60개사의 인사담당자와 구직자 간 현장상담, 지역기업 인재상, 기업정보 제공 등 맞춤형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일전환아카데미관'에서는 위기근로자 대상 교육연계 서비스를 안내하고, 정부·지자체사업 일자리정책 등을 홍보한다. 부대행사로는 무료이력

서 사진촬영, 희망 명함 만들기, 경품추첨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린다.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위한 온라인박람회도 지난 13일 시작해 10월5일까지 동시에 진행된다.

박정환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이 구축·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기업의 고용친화적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의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자생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총사업비 483억원) 2년차로 지역 고용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가전기업 위기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양성, 기업 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해 실직자 및 실직 예정자의 이·전직과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강기정 시장, 콘텐츠 창업가들과 '정책소풍'

기업 대표들, 지원 확대·인재 공급·해외 바이어 매칭 등 건의

강기정 광주시장(사진)은 28일 광주지역 콘텐츠 기업 창업가들과 만나 스타트업·벤처기업이 떠나지 않고 머물기 좋은 광주, 스토리가 있는 문화 중심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콘텐츠허브가 조성돼 있는 전일빌딩245에서 '정책소풍'을 개최하고 이같이 약속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핵심인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스토리, 지식 서비스 등 콘텐츠기업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강 시장은 '두다다쿵'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아이스크림스튜디오'와 모바일 게임 제작기업인 '플렉시마인드' 사무실 등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사업 진행 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정책소풍에 참석한 대표들은 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광주시 지원책 확대, 미래 인재육

성 및 우수 인재 공급, 해외 바이어 매칭 등 투자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에 스토리가 있는 문화중심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영역이 더욱 빛날 수 있어야 한다"며 "색깔 있는 도시, 기업들이 머물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창업생태계를 두텁고 다양하게 조성해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민선8기 들어 현안사항에 대해 시장과 시민 간 정책소풍을 위한 '정책소풍'을 개최하고 있고, 행사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관련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전일빌딩245의 5~7층까지 광주지역 콘텐츠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콘텐츠허브가 조성돼 있고, 총 72개 기업 419명의 종업원이 각종 콘텐츠 개발을 위해 일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북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 작품전' 성황 28일 광주 북구 행복어울림센터 행복갤러리에서 우수 프로그램 발굴과 평생학습 기능강화를 위해 열린 202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 작품전시회에 참석자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영광 규제자유특구 규제 해소 적극 지원"

중기부 조주현 차관 e-모빌리티 현장 점검...관계부처 협의 약속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주요 현장을 방문해 특구실증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규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점검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강종만 영광군수, 이현조 광주전남지방중기청장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영광 등 3개 시·군에서 e-모빌리티 실증사업과 사업화 지원을 수행, 현재 전기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수단(PM) 관련 규제 해소를 완료했다.

이날 e-모빌리티 실증현황 보고와 함께 특구사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추진, 마스터자동차, ㈜세보모빌리티 등 5개 특구 대표기업이 참석한 가

운데 특구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어 e-모빌리티 제품 관람, e-모빌리티 연구센터 실의 성능평가장 내 초소형전기자 시승을 했다.

조주현 차관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주행실증 및 제도개선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대표적 특구"라며 "남은 규제가 조속히 해소되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금주 부지사는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에 따라 e-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방해야 되는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특구 사업을 통해 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등 산업생태계를 견고히 해 e-모빌리티 중심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귀어학교, 전국 첫 어선어업·양식업 실습

7기 교육생 20명, 현장중심 체계적 교육 '호평'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하 수산과학원)이 제7기 전남 귀어학교 교육생 20명을 모집, 무료 교육에 들어갔다. 수산과학원은 전국 최초로 수료생에게 어선어업·양식업 분야 현장 실습을 실시해 성공적 어촌 정착을 바라는 귀어희망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세 번째로 지정받아 2020년 6월 교교해 올해 상반기까지 6기 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생 93명을 배출했다. 지난 7월 2020년부터 2년 간 교육을 수료한 74명을 대상으로 한 귀어 정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1.4%인 38명이 어촌지역으로 이주했고, 이 중 36명(95%)이 전남지역 어촌에 정착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7기 전남 귀어학교는 10월 28일까지 5주간

운영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귀어정책 및 수산생물 양식기술, 귀어 성공사례 등 3주간의 이론과 귀어 전 어촌에 거주하면서 체험하는 2주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생 부담 교육비를 국비와 도비로 지원해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고 현장실습 시간을 1주에서 2주로 확대해 교육 수요가 늘어난 상태다. 또 전국 최초로 귀어학교 수료생에게 어선어업·양식업 분야 현장 실습교육을 추가로 제공해 교육 만족도를 높였다.

박준택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앞으로 현장실습 교육 확대를 통해 성공적인 어촌 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귀농산어촌 박람회'

오늘부터 3일간 서울 aT센터

전남도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29일부터 3일간 '2022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고향사랑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사)전라남도 귀농어귀촌인연합회 등이 공동 주관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해지에 따라 수도권 지역 도시민을 겨냥해 대규모 인구가 집결할 수 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전남의 다양한 귀농·귀어·귀산·귀촌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심층 상담도 한다.

전남도와 21개 시·군, 전남도교육청, 전남귀농어귀촌인연합회 등 93개 유관기관과 단체가 행사부스를 운영하며, 담당자가 직접 현장상담과 홍보를 진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

2022 목포 뮤직플레이

2022. 9. 30. 금 ~ 10. 2. 일
갯바위 문화타운 일원

목포, 음악으로 놀다

기념행사 개막식, TOP5 시상식

경연대회 전국규모 오디션 경연대회(준결승, 최종결승)
공연행사 주무대1, 주무대2, 프린지, 휴(休)공간
기 타 목포음악사 콘텐츠 전시관, 난영재극장,
전국댄스배틀대회, 플라멩크 등

주최/주관 목포시
후원 목포문화재단, 목포시청, 목포시의회, 목포시교육지원위원회, 목포시문화재단, 목포시청소년문화의집, 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목포시청소년수련관,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목포시청소년수련관,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목포시청소년수련관, 목포시청소년수련원

2022 MOKPO PORT FESTIVAL

목포항구축제

청년들과 함께하는 가을 파시항구!

2022. 10. 14. (금) ~ 10. 16. (일)
목포항맞춤학도 일원

주최 목포시
주관 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목포문화재단, 목포시청, 목포시의회, 목포시교육지원위원회, 목포시문화재단, 목포시청소년문화의집, 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목포시청소년수련관,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목포시청소년수련관,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목포해상케이블카